

### 융화해 평화사회가 될 것

(사)대한불교원용종 종정 일공



2556년 임진년 희망찬 햇살이 온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사회가 내지 전세계에 이르기까지 圓通融和 되어야 한다. 圓通은 조금도 간격이 없이 둥글게 통한다는 뜻이다.

한기점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간격이 있으면 파탄이 올 것이며 부모자식에게 간격이 있으면 天倫之親이 끊어지며 도와주는 人道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게 둥글게 통하는 곳에 만복이 따르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모략 증상하는 곳에 백가지 재앙이 뒤쫓는다.

融和는 서로 단합하고 친선하며 서로 도와서 共存 供與하는 共同生活의 規範이다.

政治에 있어서 治者, 被治者가 서로 간격이 없이 融和하며 教育者, 被教育者가 서로 간격이 없이 融和하면 모든 공동생활체가 서로 융화하며 이 사회는 가장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사회가 될것이니 서로가 믿고 융화하여 새해 날마다 아침을 맞이함이 좋은 나날이 되기를...

### 집착 없는 이 근심 없으니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임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은 세상에 다반사지만, 집착 없는 이예겐 근심 걱정도 생김일 없اد오.

근집이 천간이어도 밤에 누워 잠적에는 한평이요. 좋은 밤이 만이람이 돼도 하루 되면 족하다는데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어 세상 모든 것들은 내 곁으로 부터 살아질 날 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네.

밤낮으로 부귀 공명의 집착으로 무상한 세월을 보내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사 되지만 아침에 솟아 오르는 태양이 지난 밤 어둠을 몰아내듯 욕망과 아집으로 그릇된 망상에 얼룩진 지난날들의 허물들을 제반사가 내뺏인걸 잠회 하면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웃과 더불어 북돋는일 많이하어 보람있는 한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온 인류가 화평하기를 기원합니다.

### 국가와 민족에 행운의 빛이

울종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戒律(계율)이 淸淨(정정)하니 萬民(만민)이 우러러 보는구나 모든 修行者(수행자)는 청정하고 精進(정진)은 못세를 달구듯 하니

國家(국가)와 民族(민족)의 어려움이 가고

새해에는 만민이 正義(정의)로운 社會(사회)에서 평화롭게 살수있구나.

청정한 수행력 강화를 통해 세계 1등 국민, 더 큰 大韓民國(대한민국)을 만드는데 佛子(불자)들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幸運(행운)의 빛이 비추니 학이 한가롭게 놀고 한강은 유유히 흐르는구나.

밤낮으로 희망(희망)의 찬가 울려 퍼지니 국가가 굳건하고 한 민족이 융창하도다.

### 어둠 몰아내는 지혜 밝히세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인간의 마음이란 그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부터 맑고 깨끗하고 때가 끼지 않은 진여의 理體와 한량없는 德用까지도 갖추어 있으니 이것이 곧 불생, 불멸하고 고요하니 이를 自性 淸淨 涅槃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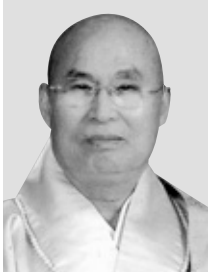
बाट케서는 인간 무명의 장벽을 뚫고 위없이 바르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 놀라움을 사바세계 만 중생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불제자를 자처하는 사부대중 모두가 제각기 갖추어 있는 자기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佛向上(부처로 가는 길)임을 자각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의 화합과 평등사상으로 아상과 아집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쉼 없는 자기 향상(佛向上)을 통해 이제 어둠은 사라졌네. 어둠의 흐름도 사라졌네. 밝은 저 광명 저 빛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면 누구나 만끽하게 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 나의 빛이 될 것이기에 모두가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 용처럼 승천하는 한 해 되길

(재)대한불교일분선교종 종정 정각



法潭呼吸 新清朝 噴出鼻端 翠霧煙  
법담호흡 신청조 분출비단 취무연

願此霧煙 履三界 變成法雨 灑人天  
원차무연 역삼계 변성법우洒인천

정명한 새해아침에 法潭이 호흡하니 코끝에선 푸른 안개가 연기처럼 뿜어낸다.

이 자옥한 안개 삼계를 덮어 놓았으니 甘露의 法雨를 人間에 자옥이 내려주소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듯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신묘년을 보내고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불자들은 용처럼 용비와 비상,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안개를 차하고 승천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 모두가 하나 되는 한해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새로운 한해의 새벽이 열린다 합니다. 날과 날이 이어지는 것 뿐 인데도 우리는 삶의 기준을 만들고 새해니 목은하니 합니다.

기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목은 날인 것을 어디에 새해 한 해가 있었습니까?

잘 살아 봅시다.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해 집시다.

우리 모두의 삶이 조금은 더 윤택해지고 서로의 아픔까지도 한뼘에 보듬어 안는, 그리하여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에게 감동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게 합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우리가 있는 곳에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국민, 그리고 울퉁은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맙시다.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모두를 격정하고 사랑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용의해 희망이 넘치는구나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雲歸峰峯屹 石立水聲虛 相與逍遙日 淸緣自有餘  
운귀봉취용 석립수성허 상어소요일 청연자유여

구름 겹쳐서 푸른 봉우리 우뚝 솟네 바위와 바위 사이로 물소리 허허롭고 서로 어울려 소요(逍遙)하던 날 청연(淸緣)이 저절로 남아 돌아 가더라.

임진년을 맞이 하며 힘들고 어려운 목은해를 보내고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는 모든 중생이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로이 솟아 오르는 태양은 모든 이들과 갈등과 경쟁심을 멈추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며 노력하는 것 마다 순탄하길 기원합니다. 즐거움만 넘쳐나서 癸亥(壬辰)년이 넘쳐나고 살기 좋은 밝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입을 지키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불자들에게 가정에 희망차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취하시여 임진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어렵고 힘겨운 정말 다사 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는 본 종단의 사부대중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불교조계종의 발전이 상당히 향상된 한해였습니다.

주리반복존자의 말씀에 “수구섭의신막범(守口攝意身莫犯)” 입을 지키고 뜻을 조심하며 몸으로는 계를 범하지 말라.

향상 입을 조심하여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얼 번 생각하고 말하고, 몸도 생각하고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들께서는 신구의의를 잘 다스리고 덕을 많이 베푸는 한해가 되시고 새해 임진년에도 본 종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함께 동참해 준다면 본 종의 발전은 나날이 향상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2012년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유덕(有德)하고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비로사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나부터 청정한 마음과 몸을 지니고 수행할 때 온 세상은 모두 청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타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다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민족은 단일민족 국가로써 예로부터 하늘을 경배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조국의 발전과 숭고한 민족 평화통일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기도 정진합니다. 2012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누리에 고루 퍼지고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빌며 새 희망과 화합을 여는 해가 되길 발원합니다.

### 탐욕심을 버려 극락세계로

한국불교원용교단 법주 마정



자극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재스민 혁명으로 평등한 권리와 인권을 찾고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도 노병사를 벗어 나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정권의 불확실성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블랙홀이 될까 세계는 노심조사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日日是好日이요,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아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끝은 암울하게 맞이하게 되는 것이니 항상 좋은 날만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의 세계를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조성하며 한 생각 어려움이 이기심을 키워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와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니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이웃과 사회와 세계가 모두 극락세계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 한평생 허공에서 놀았구나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련



法去亦無來 衣止空遊戲  
處處因緣法 一切夢中夢  
出生能不解 能悉業所得  
處處亦不知 開示夢中夢  
一生世間事 成悉隨因緣

남無阿彌陀佛

가고 오는일 모두 없는데 가는 곳 마다 인연법이라 태어난도 능히 알지 못하고 한평생 세상살이 허공에서 놀았구나 모든 것이 꿈속에 꿈이로다 모두 다 업으로 받은 바이라 꿈 가운데 꿈을 깨고보니 인연타라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나무아미타불

###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충만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벽송



온누리에 극심한 경제력 고통을 겪는 이럴때 때 일수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며 중생들이 다 같이 잘해져 나가야 합니다.

아침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고 참회의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 항상 나투시고 사랑 비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더불어 중생들을 구제하오하여 줄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비로서 나의 행복과 가정 안위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常放大光明 크신광명항상 나투시고 慈悲愍衆生 사랑비원으로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照耀大千界 온 우주를 밝게 비추시는도다 喜捨濟含識 기쁨평등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도다

### 따뜻한 훈풍불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음



空山瑞雪? (공산서설비) 天氣?來春(친기선래춘) 朝日雪松照(조일설송조) 靑葉尤靑靑(정엽유정정)

빈산에 상서로운 눈 내리니 하늘은 새로운 봄기운 돌고 아침 햇살 눈 덮인 솔 비추니 푸른 잎은 더욱 푸르러

참으로 다시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묶은 때를 벗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슴을 열어 따뜻한 훈풍을 끌어 안읍시다. 적당함을 지키는 중용(中庸)의 묘(妙)를 살려 지혜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인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 흑룡의 해 불자가 부인공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정허 신흥



萬山雪中紅日梅(만산설중홍일매) 諸人冬色不須冬(제인동색불수축)

온산 가득한 눈 속 붉은 매화 한 점 겨울을 느끼기엔 모든 사람 그 것으로 족하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연이 오렸이 담긴 흑룡의 해 임진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신념처럼 향시 자기를 낮추고 용의 기상과 같이 살아가시길 양축하나다. 불자여러분 임진년에는 누구에게나 함께하는 해이므로 잘잘못을 떠나 각하고조하는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용해는 귀 불자님이 주인공입니다.

###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心爲法本 心導心使 中心念善 即言即行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 -법구경-

마음을 향하는 것은 한 생각 일어남이니 극락과 지옥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없는 마음 머물지 않는 마음 마음아닌 마음 한생각 일어남 없는 마음

이것을 도라 합니다. 도라는 것은 마음에서 찾지 못하고 몸에서 있으나 몸에서 찾지 못하며 또한 마음 밖에서 찾지 못합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壬辰년 한해를 맞이하여 수행 정진으로 우리의 삶을 열고 그 공덕으로 이웃과 사회 모두가 복과 지혜로 넘치는 세상이 되길 합장 서원합니다.

###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축복해 줍시다.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이 되어 광명의 나날을 살아갑시다. 온 세계가 불난집에서 소꿉질하는 것 같은 삶이 중생들의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나오는 길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나”라고 생각하는 이 질긴 밧줄로부터 놓여나는 길입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울 때 안보이던 것이 보이고 거짓된 내가 사라집니다. 참으로 밝은 세상, 우리들은 극락에 살면서도 어떤 이는 “나”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들어가고 어떤 이는 “나” 때문에 축생이 되어갑니다. 부처님은 거짓된 “나”로부터 깨어나 참나를 찾아 대자유인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모두 자유인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 법륜의 수레에 다함께 타고가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보고도 못 본체 들어도 못 들은 척  
법륜의 수레에 타고 그곳으로 가보자  
거기에 가면 눈 귀 먼 동업종생이  
그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네  
서로가 동체대비심을 전하는 진정한  
법사가 되어 고통의 종생을 보살피며  
따뜻한 세상의 훈풍을 다함께  
느끼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남음 없음이 참된 공부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萬里風來 하여도 山은 不動 이며,  
千年水積 이라도 海無量 이니라.  
  
만천하에 재난이 닥쳐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불성이요,  
천년을 흐르듯이 염불을 하여도,  
남음이 없는 것이 참다운 공부다.

### 부처는 항상 그자리

(사)대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청해



부처님 신묘년 가시는 길마다 중생들  
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짐 고이집어 들고  
가시옵소서. 임진년 오시는 길마다 평화  
롭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  
들고 오시옵소서. 가시고 오시는길 항상  
그 자리에 있건만 중생들은 가고 오심을  
그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비스러운 부처님 행복하신 부처님 즐거우신 부처님  
중생들에게 고루 나누워 주시옵소서 부처님 가고 오시는길  
행복하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 다시 맑고 청정한 빛 비추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心月獨圓  
光吞萬象  
光非照境  
光境俱亡  
復是光明  
의뢰이 빛을 발하는 마음의 달  
광명이 온누리를 삼키니  
광명이 비추어 없고  
경계가 사라진다  
광명과 경계가 사라진 뒤  
다시 맑고 청정한 빛 비추는 구나.

###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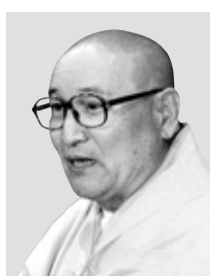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마음이 맑아 항상 명경지수와 같으면  
천하에 혐오할 일은 저절로 사라지며, 자  
신의 의지와 기운이 화평하여 항상 좋은  
날씨와 같으면 천하에 미워할 사람은 저  
절로 사라진다.  
옛 성현들은 세상살이를 하면서 마음  
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결국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죽이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기에,  
임진년 한 해에도 마음자리를 잘 공부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  
합니다.

### 시비분별 놓으면 부처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회암



目無所見 無分別  
耳聽無音 絕是非  
是非分別 都放下  
但看心佛 自歸依  
눈은, 보는 바 없어 분별심을 여의었고  
귀는, 듣는 바 없어 시비심을 끊었네  
시비분별 모두를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본심으로 가라

### 정신차려 허튼길 벗어나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장 법상



임진년 동녘에 새해 다시 솟아나니  
희망과 기대에 부푼 가슴 세인들에게  
새 귀인 출현해 이 백성에 용기주고  
한민족 진운을 다시한번 발휘하세!  
허튼소리 하다보니 사자소리 다 놓치고  
몸 써를 하다보니 좋은 기운 다 버리니  
내 정신 내차려서 허튼길을 벗어나서  
불력의 진동소리 가슴으로 맞이하리!

### 연꽃세상 만듭시다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왔다갔다 왔다갔다 끝없는 윤회의 수  
레바퀴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삼독(三毒)의  
환자되었으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심  
으로 빨리 회복하여  
오고감이 없는 세상 극락정토 모두가 다함께 감시다.  
새해에는 더욱더 삼학(三學)을 갈고 닦는 염불(나무아미타  
불)  
행자되어 시시비비(是非非非)없는 세상 연꽃을 피웁시다.

### 우리 모두 베풀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심곡



임진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  
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  
잡혀 무시습속(無始習熟)한 습업의 선을  
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여 놓아  
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  
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  
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새해에는 용처럼 위풍당당한 한해 되시  
기를 바랍니다.

### 불법이 임제 바다 넘쳐

해동불교임제종 종정 지암



임진년 새해에는 서로 화합하고, 용서  
하고, 베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  
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고, 부처님  
의 바람의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흐르네. 임제종의 활은 후학을 살리고자 힘이였다.  
활은 당대 후학들을 깨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임제종 가풍)  
임진년 한 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대한불교선종 종정 효담



生前不持 十八殃  
살아 생전에 열여덟 가지의 재앙을 가  
지지 않을 것이면  
死後十獄 不持苦  
사후에 열자옥의 괴로움을 면하여 가  
지지 않을 것이니라  
生前死後福樂期  
생전과 사후에 복과락을 바라 영생불멸의 자리에 가려거든  
心身在善慈佛他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

### 마음비워 사물 바라봐야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스님



佛谷 何寬闊(불곡 하관벽)  
幽清 自劫前(유정 자갑전)  
虛心 看物處(허심 간물처)  
那箇 是平常(나개 시평상)  
  
부처를 어찌 이리 넓게 열려  
영감의 이전부터 그윽하고 맑아  
마음 비워 사물 바라 보는 곳  
그것이 바로 평상의 마음

### 자비감로수를 베푸소서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세간적인 명성과 이익에서 벗어나 크  
나큰 불도의 위 없는 무상의 공덕을 깨닫  
고 일제종생의 반목과 탐욕의 갈등을 씻  
어 내는 부처님의 자비감로수를 베푸소  
서.

### 자성정정을 깨닫길

화쟁평화중앙교원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자성이 본래 정정하고, 모든 것을 다 갖  
추고 있고 아무런 동요가 없으며 능히 일  
체 만법을 만들어 내거들 무엇을 더 바라  
겠습니까? 단지 나의 분수를 알고 세상이  
화평하기를 바랄 뿐..

### 염불 생활화로 복된 한해를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염불하는 마음은 밝은 마음이며 밝은  
마음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매일 십념(나무아미타불 10번 이상) 염  
불을 생활화하여 어두운 마음 밝히고 베풀  
는 마음을 써나감으로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과 복된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 고통과 어려움은 잠시잠깐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어둠이 지나면 여명의 아침이 밝아 오  
듯이 고통과 어려움도 잠시잠깐 찬란한  
아침 햇살 속에 자취를 감춥니다.  
임진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 할 것을 기원합니다.  
나무마하반아바라미

##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복대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LG화학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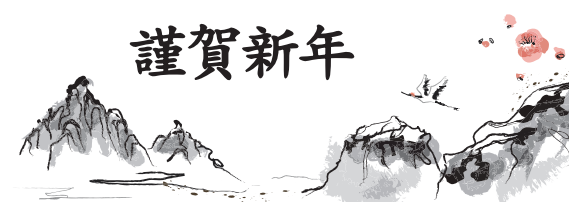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  
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  
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  
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  
면 장숙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  
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  
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썩뎠을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뎠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  
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뎠(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  
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  
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  
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저국건강매트, 오실진조개, 오추배개등 제품다양)



## 팔리문헌연구소

소장 마성 외  
직원일동

우) 641-84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3-38번지 덕산빌딩 301호  
전화 055-285-9383  
http://www.ripl.or.kr